

教授의 內省과 學生의 理性

林 漢 永
(漢陽大 教育學科 教授)

教授와 學生

만일 나라는 主體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좋은 것이나 또는 가치가 없는 것이나 하고 묻는다면,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정신의 모든 것에 대한 自己反省은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니이체는 말하고 있다. 自己意識에 대한 질문, 즉 內省에서 시작된 哲學이란 시행착오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意識하는 것은 모두가 철부철미하게 조정되어 단순화되고 도식화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과거 경험을 나의 의식 속에서 비판해 볼 때, 과연 그것이 조정된 것이며, 단순화되어 도식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 사람 앞에서 과시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과거 경험 자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기 때문이다.

니이체에 따르면 反省의 始原에 있어서 자기를 은폐하는 것이 과거의 것이거나 동시에 現存의인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에 대한 질문은 과거의 것인 동시에 현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고로 나의 체험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은 과거의 것인 동시에 現存의인 것이라고 하는 것만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존 듀이에 의하면 自我를 反省하는 反省的 思考야말로 自我

의 성장을 북돋아 주며, 自我와 他我와물 상호 작용케 하며, 그 授受作用에 의하여 은폐될 수 없는 경험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철학적 태도란 확실한 主體와 불확실한 客體와의 끊임없는 경험의 연계 속에서 反省的 思考를 통하여 共同善을 割與하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여하간 과거 나의 教授生活을 회고해 보았을 때, 나는 學問的, 私的 研究生活面에서는 실패라기보다 어느 정도 成果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나의 실력 부족 그리고 無學德의 소치로 그랬는지 모르나 학생을 인간답게 지도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신 있는 대담이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젊은 대학인의 생활로 환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反動的 感受性이 강한 학생들의 모습을 나의 것으로 투영해 보고 싶다. 그리고 지나친 自己享樂과 一身의 안전에 대한 欲望에 자극되는 오늘의 시대를 凝視·再認識하고 싶다. 왜냐하면 많은 物質資源과 市場競爭制度가 인생에 대한 긴장감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에 비하여 早婚에 급급하며, 찰나적으로 生을 享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극단의 '시너지즘'에 사로잡혀, 때로는 깊은 공허감에 탐닉되어 그들은 전통적 도덕가치, 전통적 종교나 정

신적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一體性的으로 挑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본다. 그 이유로 實存主義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그의 신봉자와 그 철학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요즘의 시대는 젊은이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예컨대 현대의 많은 학생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狂信的 實存主義의 詩人, 劇作家, 畫家들에 강한 욕구적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 싶기 때문이다.

또 하나 대학생들은 현대의 과학적 발전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민감치 못하다. 많은 대학생들은 ‘敎育’과 ‘科學的 發展’을 거의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다. 국방 경쟁, 생존을 위한 경쟁에 의하여 과학자나 정치가나 교육자들이 국가 안보와 국방 교육에 전심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날의 대학생이 再認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自然科學이나 工學에 전념하고 있는 대학원 학생에게 큰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人文科學에 매력을 느끼는 학생은 科學徒의 科學的 업적이 많은 물질적 보수를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二流의 학생이라는 열등감을 갖는 사람도 개중에는 없지 않다고 본다.

이와 같은 세대적 사고의 갭이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바로 대학 교수와 학생이다. 본인이 이렇게 과거의 나의 대학생 시절과 오늘의 시대의 변모를 비교하는 이유는 모든 사상이나 행동이 변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차이를 분명히 하고 또한 나 자신이 학생들과 더불어 오늘의 시대를 다시 한 번 전망하는 동시에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의 대학인들에게 교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젊은 학도의 입장에서 자신을 反省하며 권고하고 싶은 심경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大學人の 時代精神

오늘의 시대가 위기의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비관할 것도 아니며, 낙담할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허무감을 느껴서도 안 될 것이다. 대학인은 오늘 의 시대에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을 받는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똑똑히 응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인은 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가 하는 것부터 自問內省해야 할 것이다. 대학인은 그가 처해 있는 곳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져야 한다. 또한 남달리 그 사회와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高等의 지식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든 사실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연마하는 고도의 지식은 그가 살고 있는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데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대학인 자신들이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대학인의 목적의식과 사명감이 반영되고 있는 그들의 시대정신은 民主主義와 正義社會 구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다른 교수나 내 자신이 지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하며 오늘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대학인에게 몇 가지 호소하고 싶은 것이 이 글의 주축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학인은 급변하는 시대와 더불어 위기의식이 가득찬 오늘의 세계를 걸어가는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倒錯의이고 편협적인 동향에 반응하면서 정신적으로 무감각한 혼미 속에서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며, 오류를 범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참된 진리탐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우기 어떻게 하면 이 無常變遷하는 세계에 살면서 자기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개혁의 가능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성격을 어느 정도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에 대한 경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경의, 즉 ‘尊敬의 信念’을 적극적으로 도야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젊은 시절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 일본인에게서 자극받은 정신은 ‘民族愛’와 ‘國家에 대한 忠誠心’이었다. 해방 후 美國의 대학에서 배운 것은 民主主義의 정신이다. 과거 30여 년을 Dewey의 Pragmatism에 조명된 民主主義의 ‘敎育哲學’을 강의해 온 나로서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聖句대로 항상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삶에 대한 철학

의 한 토막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대학인은 먼저 자기를 존경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自覺해야 한다. 自我를 존중한다는 뜻은 대학사회의 일원으로 자기의 역할과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능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교수는 지도해야 할 것이다. 교수에 의하여 학생의 역할과 그의 수행능력이 높게 평가될 때, 학생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하여 경의를 갖게 되며, 자신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여 더욱 연구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재능이란, Dewey에 의하면, 학생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어떤 사소한 일에 체력이나 에너지를 소비하여 자아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아에게 경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자기 재능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거만하거나 이기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허영심이 강하여 타인에게 무엇을 무리하게 강압한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교수는 학생으로 하여금 自我에 內在해 있는 潜在的 可能력을 충분히 자각하게 해 줄 때, 학생은 자신을 갖고 자기에게 존경의 신념을 갖게 된다.

‘나 自身’을 존경하는 학생이야말로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갖게 된다. Dewey는 이렇게 自我와 他我를 존경할 때, 양자가 사는 사회는 참된 민주적 자율사회가 된다고 하였다.

自律社會로서의 대학은 학생에게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수나 학생이 통찰력을 심화하고 창조적 추진력을 자극하여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默想과 思索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默想에 의하여 견식, 창조성, 品位와 人格을 고양할 수 있다고 보증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고요히 默想에 잠길 때 인간의 목적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러한 철학을 발견치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시간의 여유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생활은 쳇바퀴와 같이 반복하는 기계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골은 ‘출속주의’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 인간은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를 추구한 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믿고 眞實을 추구하여 살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의 사회적 의무가 서로 협조하는데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心魂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 버리게 될 것이다. 단지 社交에 정력운 소도해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세계—자기 내부에서 성숙되는 자유의 분위기가 응축되는 것에 의하여 건설된 신세계—를 거만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란 자기가 배출하는 입김을 가지고 스스로를 濡潤하여 개개의 元氣를 산만케 해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시대정신 속에서 自我의 자유를 해방시키고자 학문을 탐구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學說이나 論說이나?

대학이라는 지성 사회에 있어 교수가 주체성 없이 경거망동하게 될 경우 그는 동료 교수나 학생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인은 4.19 당시 모 대학에서 ‘御用敎授’라는 명예스러운 직함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타당한 것이었다. 自由黨 시절 본인은 정부대표로 수 차례에 걸쳐 국제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일주일 때로는 일개월 이상이나 대학의 연구실을 비우고 다니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의 강의에 충실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해외 출장이 잦아 보니 대학 당국에 오해를 사게 되어 한때는 그 대학에서 해직을 당할 위험한 지경도 빈번히 있었다.

1958년 유네스코 제 10차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었었다. 본인은 당시 文敎部 長官이었던 김범린씨와 金東一박사, 毛允淑 女史, 장래원 사무총장과 같이 그 회의에 참석했었다. 그 후 김범린선생이 서울신문사 사장으로 전임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서울신문에 글을 빈번하게 쓰게 되었었다. 1959년 1월 한달 동안 ‘유네스코와

교육'이라는 주제를 연재하게 되었다. 물론 배학 교수가 논설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를 쓴 목적이 연구한 學說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료를 두둑히 주는 바람에 서울신문의 기호에 맞는 내용을 他意에 의하여 쓴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이 나를 '어용교수'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후부터 나는 대학 교수의 유일한 사명은 학문에 대한 심실한 연구로써 강의준비를 충실히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지금도 글을 쓸 때마다 學說과 論說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혼동될 때가 많다.

그렇다고 나는 교수로서 일생을 학문에 바쳐 오는 동안 理性을 잃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해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을 가치의 최고 기준으로 社會的 知性을 추구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John Dewey의 Pragmatism을 研究하였기에, 臨機應變이나 時機에 맞추어 輕快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본인은 非理性的의 방법을 쓸 줄도 모른다. 하지만 봄 학기에 내가 봉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태모가 크게 일어났었다. '御用教授'의 소리가 두려워 그랫던지 학생 대중들 앞에 나가 이것을 제지할 용기와 힘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도 몹시 반성하고 있다.

교수는 학생에게 이성적 자각을 예민하게 해주는 동시에 자신의 주위에 있는 동료 교수에 대하여 경의를 돈독히 해 주는 것이 교수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교수나 학생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인물의 실력을 인지하게 되면, 자연히 서로가 동정적인 이해가 증대되는 학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특히 학생이 교수나 다른 학생의 능력에 대하여 성실한 경의를 표명한다면, 民主主義와 正義社會를 구현하기 위하여 共同研究가 활발해질 것이며 共同善의 목적을 위하여 교수나 학생 서로가 협력하고 같이 研究活動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저야 할 또 하나의 책임은 한국인으로서 우리에게 전수된 民族的 傳統을 인식케 하는 일이며, 그러한 전통을 계승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행운을 자각케 하는 일이다.

그러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은 理性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폭력도 金力도 권력도 이성 앞에는 從屬祭物이 된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물리적인 실력에 의하여 야기되는 혼란이나 험박이 오는 理性을 신봉하는 지성인의 면전에서 도전할 수도 있다. 그것은 대학집단의 회원에서가 아니라 개인적 경험에 깊게 뿌리박은 불순분자도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평화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이역에서 온 적색성분도 끼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대방이 비록 같은 대학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투적인 행동으로 대학을 파괴한다면, 이는 '非理性的'이라는 카테고리로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이라는 學體가 '진리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共同善을 겨냥하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구성원 사이에 계층이나 지위나 권위나 하는 식의 도식적 區別意識이 형성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형성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理想的의 아카데미즘에 도취되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일생 동안 학자로서의 나의 생활의 목적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자에게도 뒤떨어지지 않게 힘쓰고 있을 것이며, 때로는 교수는 비평가의 입장에서 타인과 국가사회를 위하여 사회를 혹평할 수도 있고 예술가의 입장에서 아름답게 찬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경우와 같이 '御用教授'라는 호칭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때로는 다른 학자와 異見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보기 때문에 당국의 눈에 거슬리는 비평을 하게 될 때 '政治教授'라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교수나 학생이 잘 알고 있는 現在性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진리의 창조와 발견에 의하여 획득되는 환희와 만족감이야말로 대학에서 30여 년 봉사하는 나 자신의 연구활동을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自認하고 싶다.

그렇다고 연구활동이나 학문적 업적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일이 대학인의 특권이나 독점물로 생각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단지 대학인은 정치활동이나 종교활동보다는 연구활동

을 통하여 오늘의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理性的 자세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체는 대학인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懷疑의 特權과 理性

대학인이 정신적 환희 속에서 전생애를 바쳐 연구생활에 초지일관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대학인이 추구하는 지식의 가치와 존엄은 단지 물질적 보수와 같이 현금가치적인 유용성에게만 의존하여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수적으로 소수에 불과하지만, 지식의 존엄이 중요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증명되어 왔다. 대학이란 Dewey 에 의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우해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업적 행동'을 학문의 유일의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학인에게는 학문연구에 대한 英知와 동료 교수와 학생에 대한 이해는 그 이해를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나는 항상 주장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은 우주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는 염원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본인은 부유한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에의 유학 당시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것보다는 쾌락한 시간과 학생운동에 많은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참된 학문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 다행히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비로소 학문의 진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학문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인간과 우주의 존재이유를 論證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論證된 이론이란 인간 경험의 다른 모든 부분과 모순이 되지 않는 형태로 완성된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대학인의 사명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에는 손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요새 와서 제인식하게 되었고, 길이 內省하면서 학문의 진수에 도취되고 드디어 회의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여기서 Yale 대학 교수 Kingman Brewster, Jr.

가 말한 “大學은 懷疑의 特權을 讚美해야 한다”는 명언이 생각이 난다. 지식의 진보란 최선의 가장 우수한 사고방법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과감하게 探究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Sidney Pollard 가 「進歩의 思想(The Idea of Progress)」에서 말하고 있다. 가장 우수한 思考方法의 源泉은 ‘懷疑’에 있는 것이다. 教授와 학생은 회의의 세계에서 論爭을 시작하며, 논쟁은 새로운 것을 探究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만 단지 독선적인 주장으로 상대방의 異見을 시비·교정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수는 年齡이나 權威나 先輩라는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학생 앞에서 客상을 치며 고향을 친다면가 夢想 속에서 도취된 상태에 빠져가며 도리에도 맞지 않는 理論을 가지고 後進들을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愚見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책임은 학생에게 ‘懷疑’와 ‘理性’을 길러 주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학생의 중요한 存在理由란 탐구에 있으며, 탐구하는 방법의 최고 기준을 理性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眞實과 誠實으로써 危機 타개

오늘의 한국 사회가 대학인에게 요구하는 특성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다. 교수나 공무원이 일상생활의 생계를 얻기 위해 매일 해야 할 일에 대하여 全身全力을 다하여 이룩하려는 습관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비록 기대했던 보수의 질이 어떠한 것이거나 우리가 행하는 일절의 일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실천한 것은 ‘眞實과 誠實’된 정신이다. 물질적인 것일지라도 또는 예술적인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지식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高揚性을 가진 것일지라도 무릇 보수는 우리가 全精力을 경주한 것에 대하여 받는 상금이니 기본내기는 대로 무사안일에서 얻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본인은 과거 40여년간 敎師生活에서 물질적 보수에 불평불만을 가졌었다. 白濤 崔奎東先生님의 敎訓이 생각난다. ‘교원’이란 남의 귀한 아들 딸을 맡아 교육하는 사명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人類愛가 실현되는 환희 속에서 자신의 진가를 찾는 것이

다. 교사가 天職이라고 함은 보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職을 통하여 구현되는 '學德'의卓越性을 뜻한다는 것을 오늘에 와서 비로소 나는 內省·自覺하게 되었다.

대학사회를 교수나 학생이 그것을 최고도의 수준에 조명하여 결실이 있는 것으로 완성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면,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금까지 경험치 못했던 정도의 노력이 강요되어야 한다. 연구한다는 것은 무거운 重荷를 진다는 것이며 가혹하고 무자비한 시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교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강한 잠재적 능력을 가진 학생에 대한 기대가 때로는 常規에서 이탈될 정도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질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眞實性과 感受性의 육성의 길이 전개되는 시기란 일생중에 학생시대 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생을 통하는 사고나 행동의 양식이 이 시기에서 형성된다고 미국의 前 하바드大 총장인 헨진스는 말하고 있다. 학생이 모든 방면에서 인격과 품위를 높이는 裝置가 마련될 수 있는 스페이스가 허락되고 있는 것은 현대 사회에 조직화되고 있는 대학 교육의 귀중한 특성이다.

끝으로 교수나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이와 반면에 정의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신화적으로 혹은 민주적으로 해석키 어려운 부조리의 문제이다. 이 부조리라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개인의 무제한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처사, 凡庸과 順應에 대하는 레지스탕트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압력에 항거해야 할 것이다. 한국 민족이나 日帝下의 한국 학생들은 日本의 불합리한 差別政策과 帝國植民政策에 대하여 파감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역사를 은폐하기 위하여 日本 歷史 교과서를 부당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인은 우리 조상들이 不當, 不條理, 非理에 대하여 투쟁해 온 生魂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언제나 위기와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졌다는

엄연한 사실을 학생들은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세대의 위기는 이데올로기 또는 核戰爭, 南北간의 冷戰과 競爭, 그리고 科學技術의 發達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위기의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위기 자체가 세계적 규모의 것이기 때문에 역사상 최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대처하기 어려운 정도로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대학인은 이와 같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증책을 느껴야 할 것이다. 대학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 준 문화적 유산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과 같은 위기를 낳게 한 큰 문제를 대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충동을 가지고 연구에 심취해야 할 것이다. 대학인 각자의 장래의 계획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 조국의 알날에 관해서 깊이 숙고해야 하며, 우리 선배들이 영원해 왔던 理性主義를 위하여 힘써야 할 때라고 본다.

대학의 知性人이 된다는 것은 이종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교육과 인간으로서의 성숙이 창출하는 이종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고하는 삶에 몸을 바쳐 문명화된 인간을 괴롭히는 영원한 신비의 세계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탐구하는 연구자로서 학문의 세계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것과 동시에 理性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자유의 세계란 한국이 염원하는 民主正義의 世界를 내포하는 것이며, 그 지도자로서의 교수는 책임을 지고 계승자로서의 학생에게 세계 속의 한국의 理性을 깊숙이 심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理性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수는 학문의 創意性和 科學的 方法과 研究 업적의 奉仕性을 언제나 省察하며 연구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학생은 知性的으로 사고하고 理性的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